

Youngeun News

동행

5월

2024년 453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옆?

내 뒤?

아니면 내 마음 속?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올 그 날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11~14) 

〈글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53호 / 2024. 5. 5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광일 장로

편집장 구자민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팀장 김창원 집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24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Innovate, 자량과 기쁨이 되는 교회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알고 알고 믿고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 과정 / 이찬양 목사

08 동행

프랑스 교회, 위그노 이야기 [1편] / 이기정 목사 (프랑스)

10 웹진 동행

1교구와 함께 하는 헌신예배 / 김명희 통신원

3남선교회, 일암교회 정유근 목사님 방문 / 이진원 통신원 (3남선)

영은교회 창립 64주년을 기념하며 / 김명희 통신원

미안마에서 온 편지 / 최동익 선교사

16 영은소식

영은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 한진구 목사

고(故) 박성창 은퇴장로 교회장

교회창립 64주년 기념 <울백데이> / 김명희 기자

24 건축위원회 보고서

설악영은센터 신축공사 진행사항 건축위원회 보고서 / 건축위원회

27 녹색교회 : 녹색계명

녹색 제3계명: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 /

장예은 (팀초록 팀장)

28 교회안내

2024 부흥사경회 믿음을 치유하라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Innovate, 자량과 기쁨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12~15)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데살로니가 공동체, 희망을 전하는 교회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렀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이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 선교팀을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며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특별한 애착을 가졌습니다.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신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살전2:20)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개의 중요한 동사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 알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신실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살전5:12)

여기에서 ‘수고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피곤해 지칠 정도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말 못할 고생을 많이 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감과 싸워야 하며, 더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고, 다양한 가십거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결코 쉽게 다스리고 말로만 권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부서 공동체에 여러 리더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수고하는 리더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수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라’로 번역된 단어는 ‘이해하라’ ‘신뢰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리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섬겨주는 아름다운 손길을 이해하고,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이해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섬김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상황에 서서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고하는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믿음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 리더라면 저는 믿습니다’라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살전5:13)”고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수고하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들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함께 배워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화목한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리더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야 합니다. 즉 그들의 수고를 이해하고, 그들을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서로 존중해주며, 화목함으로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 격려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살전5:14)

공동체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으며, 힘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성향을 가진 지체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누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아도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서를 잘 지키며 서로 자기 몫을 다한다면 공동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는 ‘질서’와 거리가 먼 삶을 살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없는 이를 밟고 올라가지만, 교회는 힘 없는 이를 등에 업어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비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권면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며, 격려의 말을 통해 도와야 합니다. 격려를 통해 사람을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체들을 격려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통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 많이 오가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격려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 인내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살전5:14)

오래 참는 것은 특정 사람을 대할 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내로 다가가야 합니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오래 참는 일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명령합니다.

‘오래 참다’로 번역된 단어는 ‘멀다’와 ‘분노’의 합성어입니다. 즉 분노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래 참다’입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를 분노케 하는 말로부터 귀를 닫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도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분노와 먼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에서 멀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살전5:15). 나를 분노케 하는 악행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악행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악에서 멀어져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오래 참는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노케 하는 악한 행동에서 멀어지며, 착한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분노케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로부터 멀어져 오히려 선행을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 자량과 기쁨이 되는 영은교회

창립 기념 6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자량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한 세 개의 동사를 기억합니다.

◎ 알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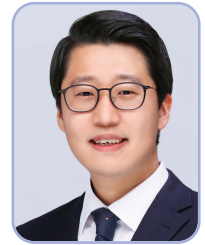
◎ 격려하라!

공동체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 인내하라!

분노와 악에서 멀어져 선을 선택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알고, 격려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자량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Innovate’입니다. 



글 | 이찬양 목사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 과정¹⁾

한국 장로교회는 19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된 이후 일제의 방해, 내부적인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해방 전까지 하나의 교회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장로교회는 셀 수 없이 많은 교단으로 분열하였다. 해방 이후에 진행된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세 번의 분열 과정을 살펴보자.

첫째, 고신파 교회의 분열이다. 해방 이후,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고를 치른 성도들은 한국 장로교회의 영적 재건을 위해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이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회개와 자숙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당시 일제에 협력했던 조선신학교에도 해당되었다. 유난히 옥고를 치른 성도들이 많았던 경남노회는 한상동 목사 등을 주축으로 1946년 9월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설립하였다. 조선신학교가 정통신학교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신학교 인준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결국 신학교 인준 문제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고려파는 1952년 9월 경남 진주에서 독자적인 총회를 조직하고 분립하게 되었다.

둘째, 조선파 교회의 분열이다. 조선신학교로 편입한 평양신학교 학생 51명은 1947년 5월 총회의 전통을 사랑하는 학생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이 「진정서」에서 조선신학교 교수들의 근대주의 신학사상과 성서의 고등비평을 거부한다고 선언하였다. 당시 조선신학교의 신학적 지

도자였던 김재준 목사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총회는 이에 1948년 6월 장로회신학교를 별도로 개교하였다. 더 나아가 장로교 제37회 총회는 조선신학교 학생들에게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의했다. 이에 결국 조신파 교회는 1953년 한국신학대학 강단에서 9개 노회 대표 47명이 모여 법통 제38회 총회를 가짐으로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되었다.

셋째, 합동과 통합의 분열이다. 합동과 통합의 분열의 중심에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었다.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 창립대회에 다녀온 김관식 목사는 공식적으로 총회에 가입 제안을 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총회의 결정은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²⁾의 갈등을 촉발하였다. 복음주의 진영은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교리를 위반하고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에큐메니칼 진영은 세계교회협의회가 초교회가 아니며, 그저 교회들 사이의 친교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은 1959년 제44차 정기 총회에 파송될 경기노회의 총대 선출과정에서 폭발하였다. 총대선출에 불만을 가진 에큐메니칼 진영은 연동교회에서 독자적인 총회를 개최하였고, 복음주의 진영도 이에 맞서 승동교회에서 12월에 총회를 속개함으로써 장로교회는 연동측의 통합파와 승동측의 합동파로 분열하게 되었다. 

1) 김홍수 외, 『한국기독교사 탐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133-144.

2) 에큐메니칼은 다양한 층위로 해석되지만, 보편적으로 '교회 일치'를 나타낸다.

본 원고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는 복음주의 진영과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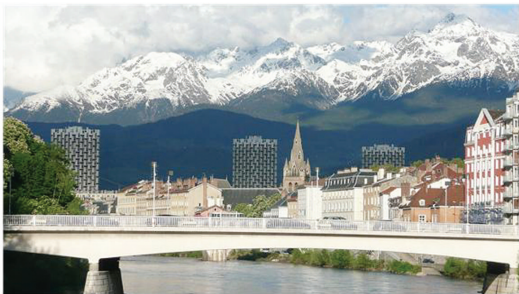


글 | 이기정 목사(프랑스)

프랑스 교회, 위그노 이야기 [1편]

— “장로교 교인이라면 ‘위그노’라는 말을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 —

안녕하세요. 영은교회 교우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함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프랑스 그르노블(Grenoble)에서 그르노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정 선교사입니다. 지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 그르노블

제가 있는 그르노블은 리옹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 스위스,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의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입니다. 비록, 소도시일지라도, 유럽과 아프리카의 IT 허브를 만들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야심찬 계획 덕분에 IT와 과학과 연관된 다국적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체감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검색으로 유명한 N사의 AI(인공지능) 연구소도 몇 해 전 이곳에 설립된 것으로 봐선 벌써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들 대부분은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마르틴 루터’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프랑스에 와서 하나, 둘씩 알게 되기 전에는 마르틴 루터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인으로 서 있는 우리라면, ‘위그노(Huguenot)’라는 말을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 오늘은 제가 알게 된, ‘프랑스 교회와 위그노’에 대한 이야기를 교우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 ‘위그노’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를 일컫는 말이다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떠오르기 전 프랑스에서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인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성서에 대한 큰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모(Meaux) 그룹으로 알려진 인문주의자들이 시편과 복음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중심인물 가운데, 에라스무스와 자크 르페브르 데타플, 프랑수아 1세의 누이 앙굴렘의 마르그리트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서와 신학에 관해 쓴 많은 저서를 사람들이 읽게 되었고,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자크 르페브르 데타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그리고 칼뱅¹⁾이 데타플의 성서 해석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아! 중요한 사실. 이렇게 생겨난 프로테스탄트들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Huguenot)’라고 부릅니다.

1) 흔히들 칼빈 혹은 칼뱅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기에 정확한 발음은 ‘장 칼뱅(Jean Calvin)’이다.

■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위그노들

1555년까지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들이 교회를 조직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등장 이후,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 운동이 급속히 퍼졌고 1562년부터는 내전이 잇달아 일어나는 등, 위그노 교도들은 승리와 패배를 번갈아 겪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1572)’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나며 수많은 위그노 교도가 가톨릭교도들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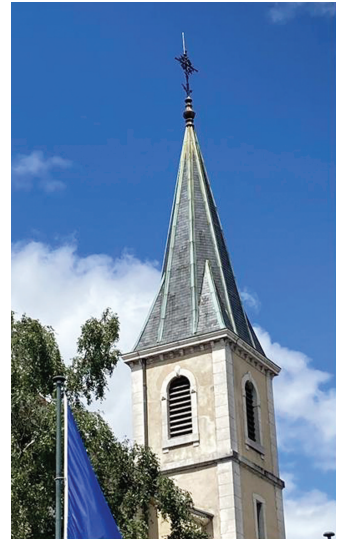
광야박물관 입구
(위그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마리 뒤랑 생가)

이때 위그노를 이끌던 나바라의 (우리에게 앙리 4세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엔리케가 가톨릭교회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프랑스 왕이 되면서 잠깐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일은 로마 가톨릭교도들에게 만족스러운 일이었고, 앙리 4세는 그 유명한 ‘낭트 칙령’을 공포하여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실제로 보장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루이 14세가 왕으로 즉위하며, 낭트 칙령을 폐지했고 위그노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광야 교회 시대’라는 긴 고난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지금도 프랑스 남부에 있는 위그노의 ‘광야 박물관(Musée du Désert)’에 가면 당시 위그노들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모습에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박해를 견디다 못해 25만 명 이상의 위그노 교도들이 독일, 네덜란드, 잉

글랜드, 스위스,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망명한 위그노들의 대부분이 엔지니어와 지식인들이었기에 당시 프랑스 주변국들이 발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분열과 연합

반면, 프랑스에 남은 사람들은 숨어서 신앙을 유지하며 박해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때에야 비로소 신앙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기에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어렵게 신앙의 자유를 얻어



프랑스교회 위에 서있는
위그노 십자가

내었음에도, 1848년 이후 정통파와 자유파로 나뉘며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통파는 교회의 신앙고백을 엄격히 따르는 반면, 자유파는 개인 양심과 자유를 중시하며, 강제적인 신앙고백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20세기 초 프랑스에는 4개의 주요 개혁신교회 그룹이 생겨납니다. 1905년 프랑스 정부는 모든 종교 단체들을 국가로부터 분리하는 법을 제정했고, 교회들은 이때부터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해야 했기에 각각의 개혁신교회 그룹들이 다시 연합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1936년 공동신앙선언을 채택하며, 1938년에 프랑스 개혁신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1교구와 함께 하는 헌신예배

— “100여 명의 구역원이 함께 한 찬양의 시간” —



4월 7일 첫째 주일 오후예배는 1교구와 함께 하는 헌신예배로 드렸다. 강대희 장로(제1교구 제4지역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조경희 집사(120구역)의 기도, 이예한 집사(110구역)의 성경봉독(베드로전서 4:7~8), 1교구 담당 최광주 목사의 설교(“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로 진행됐다. 설교 후에는 1교구 일동이 준비한 특송 시간이 있었다.

이날 특송은 100여 명의 구역원들이 한 목소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를 찬양했다. 오후 예배 참석자의 거의 절반이 1교구 구역원인 듯했다. 구자민 안수집사의 지휘와 장호선 안수집사의 메인 건반 반주, 전수현 목사의 세컨 반주, 강해라 자매의 베이스 기타 반주가 있었다. 모두 1교구 구역 식구들로 구성된 찬양팀이었다. 이루다 학생이 찬양 중간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암송했다. 영유아 아이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 장년 100여 명

이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감동과 은혜의 찬양 시간이었다.

〈글 : 김명희 통신원〉





글 | 이진원 통신원 (3남선)

3남선교회, 일암교회 정유근 목사님 방문



일암교회 정유근 목사님과 사모님(중앙)을 방문한 영은교회 3남선교회 회원들



정유근 목사님과 사모님



일암교회 앞에서

4월 6일 토요일, 제3남선교회(회장: 이현준 안수집사) 회원 14명이 일암교회 정유근 목사님을 방문했다. 정 목사님은 2007년 12월 31일에 영은교회에 부임해 2020년 3월 15일까지 13년 3개월간 교역자로 사역하셨다. 현재 정유근 목사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암교회 위임목사이다.

이날 정유근 목사님을 찾아간 3남선교회에서는 일암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렸고, 목사님에게도 작은 마음의 선물을 드렸다. 남선교회 일행은 일암교회 내 카페에서 차를 대접받았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부교역자님이 우리를 반갑게 환영해주셨다.

일암교회의 특징은 주보에 전 교역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마다 주

차 장
때문에
고민하
는데, 일

암교회는 교회 옆에 있는 공공기관 소유의 주차공간을 예배시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일암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는 8명이 모여 예배드렸는데, 현재는 예배가 회복되어 장년 430명, 교회학교 120명, 총합 550명 정도가 매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유근 목사님은 일암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은 영은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안에서 평안의 안부인사를 전하셨다. **동행**

※ 더 많은 교회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의 웹진 동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은교회 창립 64주년을 기념하며

— 창립교인 기념촬영 —



좌로 박복순 은퇴권사, 김찬규 은퇴장로, 이승구 담임목사와 사모,
김동호 은퇴장로, 한영기 은퇴권사

4월 21일이 영은교회 창립주일이지만, 올해는 4월 21일 주일을 <전교인 올백데이> 예배로 KBS 아레나 홀에서 드리게 되어, 4월 14일 주일 3부 예배 시 교회창립 64주년을 기념하며 창립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창립교인 기념촬영식이 있었다.

영은교회는 1960년 4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06번지 故 이창호 장로(당시 집사) 댁에서 남 23명, 여 35명이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됐다. 영은교회는 올해로 64살이 된다. 창립교인 58명 중 현재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은 7명(김동호, 김찬규 은

퇴장로, 송미자, 이수진, 박복순, 이순희, 한영기 은퇴권사)이다. 14일 주일예배에는 창립교인 7명 중 김동호, 김찬규 은퇴장로와 박복순, 한영기 은퇴권사 총 4명이 참석했다. 거동이 불편한 송미자, 이수진, 이순희 은퇴 권사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3부 예배에서는 창립교인 4명에게 교회가 축하 꽃을 선물하며 감사를 표했다.

예배를 마치고 이승구 담임목사와 사모, 4명의 창립교인 및 교역자, 원로·은퇴 장로, 시무장로, 창립교인 가족의 기념촬영식이 있었다.

(글 : 김명희 통신원)



미얀마에서 온 편지

— “4명의 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

글 | 최동익 선교사

평안하신지요? 이곳은 지금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매일 8시간씩 정전이 되고 있어 생활하는 데 힘이 들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지역 전과 오랫동안의 갈등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경제의 발란스가 깨지면서 매일 오르고 있는 물가의 폭등은 서민들의 삶과 의욕을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발표된 군 의무 징병제로 젊은 이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 ‘ㄱ’ 청소년들의 믿음이 자라 지난주 부활절에 4명의 학생들이 세례(침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원하여 세례받기를 원했고,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일은 성령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부분은 당사자가 원해도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움은 조금 있었으나 도우심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미얀마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영은교회와 선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얀마에서는 모든 교회가 침례교회다.



물속에서 세례를 받는 13살의 학생



최동익 선교사와 사모, 4명의 세례자



미얀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

영은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글 | 한진구 목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쁨을 나누며 지역의 이웃들과 직장인들을 섬기고자 커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4개 지역 카페[메가커피(양평역점), 더착한커피(양평역점), 브링미커피, 브링미커피브루어스]와 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후원금을 지급하였고 부활주일 주간인 4/2일(화)부터 5일(금)까지 하루에 한 카페씩 양평동의 직장인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약 500여 잔의 커피를 무료로 선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전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4년간 진행된 이 커피나눔 행사는 이미 지역 사람들과 직장들에게 많이 알려져 기독교와 영은교회의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고마워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커피와 음료를 마시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은교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故) 박성창 은퇴장로 교회장(敎會葬)



지난 3월 4일 월요일 고(故) 박성창 은퇴장로의 교회장이 있었다. 고(故) 박성창 은퇴장로는 1946년 11월 전북 고창에서 6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나 1985년 영은교회 교인으로 등록하

여 2003년 집사안수를, 2013년 장로 장립을 받았고, 지난 2016년 장로직에서 은퇴했다.

고(故) 박성창 은퇴장로는 이환예 은퇴권사와의 사이에 희원, 희영, 희은의 1남 2녀가 있다.

다음은 이상의 은퇴장로의 조사이다.

조사(弔辭)

사랑하는 고 박성창 장로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는 3월 첫날 아침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비보를 듣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새봄과 함께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새롭게 소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랐건만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그동안 병마와 싸우시며 투병 중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제 장로님께서서는 험한 나그네 인생길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바라고 소망하던 저 천국,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본향에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중략)

사랑하는 고 박성창 장로님! 장로님께서서는 2013년 장로로 임직하시고, 2016년 시무장로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영은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으로 섬기셨고, 또한 은퇴 후에도 교회 화에도 봉사와, 갈렙 찬양대 등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며, 언제나 온화하신 성품으로 성도들과 친교도 잘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신

장로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이 시간 장로님과 함께 외국 여행과 선교지와, 방문하고 또는 국내의 많은 곳을 방문 관광하며 뜻 깊은 우정을 쌓았던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다정다감하고 정겨웠던 지난 추억들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고 박성창 장로님! 장로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환예 권사님의 그 슬픈 마음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유가족들, 일가친지 그리고 믿음생활을 같이했던 영은의 가족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마음깊이 간직하며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이제 주님의 품안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후 2024년 3월 4일
은퇴장로 회장 이상의 장로

교회창립 64주년 기념 <올백데이>

— 1,800여 성도가 참여한 감사와 축제의 날 —



글 | 김명희 기자



<올백데이> 예배. KBS 아레나

4월 21일 주일은 영은교회창립 64주년을 기념하며 KBS 아레나에서 전교인이 함께 <올백데이> 예배를 드렸다. 오전 9시 40분, 여는 찬양으로 시작된 <올백데이>에는 1~6교구, 청년부, 교회학교에서 총 1,815명이 참석했다. 위원장 송헌율 장로를 중심으로 <올백데이> 조직이 출범해 2월 18일 첫 모임을 가졌으며, 2개월 동안 집중해 행사를 준비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 앞에는 KBS 아레나로 성도들을 태울 6대의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 버스를 타고 KBS 아레나에 도착한

성도들은 현장에 마련된 커피차와 인생네컷 코너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사진 촬영을 했다. 아레나 입구에서는 교구별로 색깔이 다른 행운번호가 적힌 손목띠를 성도들에게 배부했다.





■ 1부 예배

오전 9시 40분, 청년부 테루아와 영은찬양단의 찬양으로 <올백데이> 예배가 시작됐다. 3천석 규모의 아레나홀은 영은의 성도로 가득찼다. 10시, 1부 예배는 최광주 목사의 인도와 이갑현 장로의 기도, 연합찬양대의 찬양, 이승구 담임목사의 말씀선포, 허남기 원로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이승구 담임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15절 말씀을 중심으로 <Innovate, 자량과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승구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 64주년을 맞이한 영은교회가 “자량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

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승구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자랑과 기쁨의 교회”가 되는 비결 세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알라.” 교회의 헌신자들의 수고를 알아야 한다. 둘째, “격려하라.” 우리 가운데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나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격려해야 한다. 셋째, “인내하라.” 악에서 멀어지고 선행을 선택하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 이승구 목사님은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씀선포 : 이승구 담임목사



기도 : 이갑현 장로



찬양 : 연합찬양대



축도 : 허남기 원로목사

■ 2부 축하

예배 후 2부에서는 청년부 한채연 양의 사회로 축하식이 진행됐다. 먼저, 영은교회 창립 6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내빈 소개가 있었다. 영등포구 갑 21대 김영주 국회의원과 22대 채현일 국회의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김재진, 김종길 의원, 김정태 전의원

등이 참석해 교회창립을 축하해주었다. 이어서 리즈 콰이어의 합창과 테너 신상근 교수(경희대 교수)의 축하 연주가 있었다. 축하식을 마친 후 성도들은 교회가 마련한 한식 도시락으로 오찬을 나눴다.



영은교회 창립 64주년을 축하하러 온 내빈(앞줄)



합창 리즌라이어



테너 신상근 교수(경희대)



한식 도시락 오찬



KBS 아레나, 영은밥상공동체



커피 줄 앞에서, 이승구 목사님과 함께



허남기 원로목사님과 신훈부부

■ 3부 교제

3부 교제 시간에는 청년부 황민철 군의 진행으로 명랑운동회와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다. 명랑운동회는 1교구에서 6교구까지 교구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구역원들이 ‘하나’가 되는 친교와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 이날 황민철 진행자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수십 장의 상품권을 선물로 배부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도 수많은 고가의 상품들을 성도들에게 전달했다. 상품 중에는 하나투어 여행상품권과 백화점 상품권, 갤럭시탭(교구별), 커피머신(교구별), 삼성비스포크큐커(교구별), 로봇청소기(LG코드제로, 충성상), LG코드제로 A95(양선상), LG코드제로 A9S(자비상), 갤럭시탭 S9FE128GB(오래참음상), LG스텐바

이미 TV(화목상), LG올레드 OLED65C2(사랑, 당회장상) 등 다양한 상품이 성도들에게 돌아갔다. 명랑운동회 단체 종합 우승상은 6교구가, 준우승상은 2교구가 받았다.

오후 4시에는 모든 참가자가 아레나홀 아래로 내려와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을 부르며 <올백데이>를 마무리했다. 이승구 담임목사님은 “행복했습니다!”란 짧은 소감을 남겼다.

이번 <올백데이>는 영은교회 2천 명의 성도가 교회 생일을 맞아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감사와 축제의 날이었다. 많은 봉사자의 수고로 <올백데이>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동행)

▶ 사진으로 보는 명랑 운동회



성도들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사회자



명랑운동회 사회 : 황민철 청년



교구별로 모두가 경기장에 모였다.



사회자가 묻는다. “상품권 받고 싶은 분!”



어린이가 용감하게 상품권에 도전한다.



믿음으로 상품권을 받았다.



너도 나도 상품권에 도전한다.



어린이는 상품권을 엄마주겠다고 한다.



명랑운동회에 앞서 몸풀기 운동



서로 안마도 해준다.

I 영은소식



공 굴리기 경기가 시작됐다.



인간 열기구다.



공을 누가 더 많이 집어 넣을까?



모두가 하나가 된다.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몸이 맘 같지 않다.



OX 문제, 알 듯 말 듯



잠에, 어린이들이 춤으로 상품권에 도전!



OX, 최고의 난이도 문제



재기차기 우승자는 이승구 담임목사님!



단체 준우승 : 2교구



단체 종합우승 : 6교구



행운권 추첨 : 화평상



행운권 추첨 : 의락상



행운권 추첨 : 사랑상(당회장상)



찬양으로 <올백데이> 일정 마무리

설악영은센터 신축공사 진행사항 건축위원회 보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어 영은 설악센터의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2023년 9월 18일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시로 건축위원간에 소통과 회의를 통해 건축에 대한 모든 결정을 협의하였으며 2개월에 한 번씩 현장회의 및 11회의 당회보고 통하여 건축위원의 의견 및 현장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사진행사항

- 2024년 4월 30일 현재 공사진행율 50% / 연인원(延人員) 2,540명

2. 완공예정일 : 2024년 8월 31일 / 관준공 : 2024년 10월 초

3. 현재 주요공정

1) 철근콘크리트공사 :

- 본관동 1층 벽체 / 지붕 슬라브
- 절관동 2층 벽체 / 지붕 슬라브

2) 토목공사 :

- 연결피트(2차) 되메우기 & 다지기

3) 전기공사 :

- 본관동 / 별관동 벽체 배관작업

4) 방수공사 :

- 연결피트 외벽체 및 슬라브 방수작업

영은설악센터가 준공때까지 안전하게 건축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축위원회



2023년 10월 복측 옹벽 공사



2023년 10월 복측 옹벽 공사



2023년 11월 도로변 옹벽 터파기 공사



2023년 12월 도로변 DCP옹벽 설치공사



2024년 1월 도로변 L형 옹벽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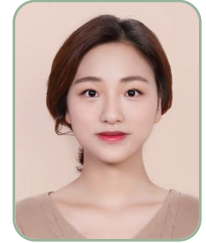
2024년 3월 본관동 바닥



2024년 4월 현재 별관동 2층 벽체 콘크리트타설



2024년 4월 현재 본관동 1층 벽체 콘크리트타설



글 | 장예은 (팀.초록 팀장)

녹색 제3계명 :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

〈영은, 녹색 십계명〉의 제3계명은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이다. 비닐을 깨끗한 상태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다면再生资源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라면 봉지, 커피 봉지, 투명 비닐 포장지 같이 크기가 작은 것도,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 완충재도 비닐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내가 버릴 이 쓰레기가 무슨 분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쓰레기 백과사전과 같은 사이트나 환

정부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
을 참고할 수
있다.

쓰레기 백과사전

예)우산,창문틀,프린터스통



우리 교회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매립용 일반 쓰레기와 3가지 재활용 쓰레기 분류로 분리배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세부적인 분류를 선택해볼 수 있을 것이고, 쓰레기를 버리기 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화장실에 친환경 주방세제와 천연 수세미 등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에서 어디서 씻어서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교육하거나 서로 도와가면서 녹색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청년부는 [팀.초록]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4층 여자 화장실에 주방세제와 수세미를 두었다.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KBS 환경스페셜 다큐멘터리를 보면 스리랑카 쓰레기 매립지

의 코끼리, 인도 쓰레기 매립지의 소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쓰레기 매립지를 찾은 동물들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섭취하게 된다.



스리랑카 쓰레기 매립지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고 숲이 더 줄어들다면, 가난하고 집이 없는 이들은 쓰레기 매립지 근처까지 내몰릴 수 있다. 언제 인간이, 내가, 그것을 먹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다회용품 쓰는 것이 좋다.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를 노력해야 하지만 쓰레기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레스 웨이스트(Less Waste,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를 추구해볼 수 있다. 조금 덜 버리고, 한 번 더 쓰고,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를 거절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다. 가능한만큼씩, 삶의 곳곳에서 쓰레기를 줄여가는 영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2024 부흥사경회

믿음을치유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2



5월 15수/ 16목/ 17금

오후 7:30 | 본당 3층

강사: 유기성 목사

강사프로필

1. 예수동행 미나스트리
2. 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3.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허남기
 담임목사 이승구
 부목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육목사 전수현
 전도사 장미애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김영락 김찬영 김희창
 황예찬 손예지
 파송선교사 구용희 백현이
 협동목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제자학교	주일 오전 10: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영은교회 찾아오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